

사람이 희망입니다.

KRIVET Issue Brief

2019

163호

발행인 나영선 | 발행일 2019년 4월 22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의식 변화

- 베이비붐 세대는 에코 세대보다 일관되게 일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, 최근의 에코 세대는 과거에 비해 일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.
- 에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여가생활과 학업/능력개발을 삶에서 중요시하였으며, 베이비붐 세대는 12년 전보다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.
-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베이비부머의 자기 평가는 에코 세대의 자기 평가보다 낮고, 시간 경과에 따라 보다 부정적으로 변화함.

주

이 글은 “한상근 외(2018), 『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(2018)』, 한국직업능력개발원” 보고서 중 세대별 직업의식을 분석한 내용 일부를 발췌, 정리하여 작성함.

각주

1) 칼 만하임(Karl Mannheim) 이래 사회학에서는 세대(generation)에 대한 이론적,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었음. 유사한 시기에 태어나 공통의 사회경제적 경험을 갖는 인구집단의 동일성에 주목한 것이 세대개념임.

자료

1) 통계청(2012) 베이비부머 및 에코 세대 인구·사회적 특성분석 [요약].
2) 한준(2015). 세대 간 격차 수준 Korean Social Trends. p.304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상이한 정치적, 사회적 상황을 경험함에 따라 직업의식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함.

-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는 인구집단으로 노동시장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크고 정치적, 사회적 발언권도 강력함.
 -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청년기에 상이한 정치적, 경제적 상황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도 서로 다름.
-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세대론적 시각¹⁾을 견지하면서 한국 사회의 직업의식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.
 -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비교는 ‘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비교’를 의미하므로 일에 대한 가치, 삶에서 일과 노동의 의미, 일에 대한 태도, 삶의 만족 등 직업의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기대됨.

〈표 1〉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인구·사회적 특성

	베이비붐 세대 (1955-1963년생)	에코 세대 (1979-1992년생)
인구 규모	695만명	954만명
1인 가구	58만 가구	100만 가구
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	2.04명	1.10명
주된 거처의 종류	아파트 52.3%	단독주택 49.6%
출생·성장기 평균 형제자매 수	5~6명	2명
유년기 정치상황	5.16과 유신	민주화
청년기 대졸 이상 비율	28.0%	76.0%
평균 GDP 성장률	10.3%	3.8%



KRIVET 모바일 앱

|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「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설문조사」 2006, 2018년 자료

-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1998년 이후 매 4년마다 「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」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함.
- 분석 대상: 「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설문조사(2006, 2018)」응답자 중 에코 세대 및 베이비붐 세대 추출

〈표 2〉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분석 대상자

세대	2006년 조사		2018년 조사	
	N	%	N	%
전체 응답자	8,700명	100.0	1,500명	100.0
	* 일반 성인 4,500명, 대학생 1,500명, 고등학생 2,700명		* 15세-64세 일반 국민	
에코 세대	4,898명	56.3	438명	29.2
베이비붐 세대	1,184명	13.6	266명	17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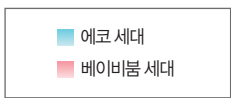
● 분석 방법:

- 첫째, 2006년 시점의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직업의식을 비교하고, 2018년 시점의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의식 차이를 분석함.
- 둘째, 12년 전 베이비붐 세대와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의식 변화를 파악하고, 2006년 에코 세대와 2018년 에코 세대의 인식 변화를 분석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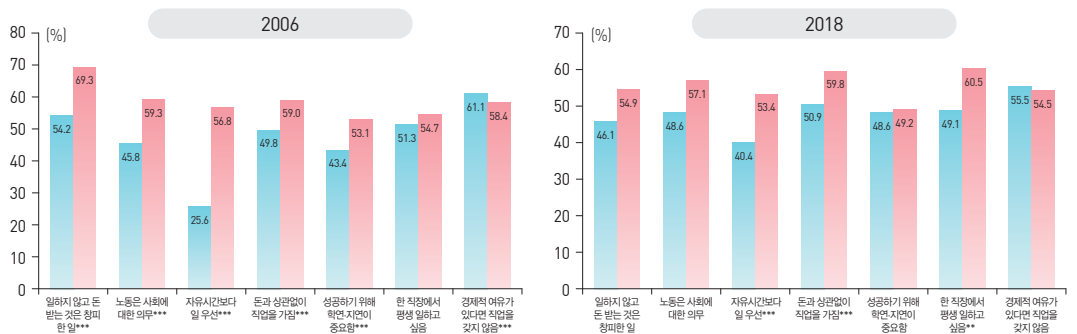
02 동일 시점의 세대 간 차이

| 베이비붐 세대는 에코 세대보다 일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나 2006년에 비하여 2018년 세대 간 인식 차이는 감소하였음.

- 베이비붐 세대는 에코 세대에 비하여 일 자체의 가치를 중요시함. 2006년과 2018년 조사 결과에서 모두 베이비붐 세대가 에코 세대에 비하여 일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.
 - 베이비붐 세대는 평생직장에 대한 관념을 여전히 강하게 가지고 있음. '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싶음'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찬성률은 2018년 기준 60.5%로 에코 세대보다 11.4%p 높음.
- 그러나 12년 동안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감소하였음.
 - 특히 '자유시간보다 일 우선'에 대한 두 세대 간 찬성률의 차이는 2006년 31.2%p에서 2018년 13.0%p로 매우 감소함.



주 |
 1) 찬성률(%)은 5점 척도에서 '④ 동의한다~⑤매우 동의한다'라고 응답한 비율
 2) *: p<0.1, **: p<0.05, ***: p<0.01로 5점 척도의 평균 값 차이를 나타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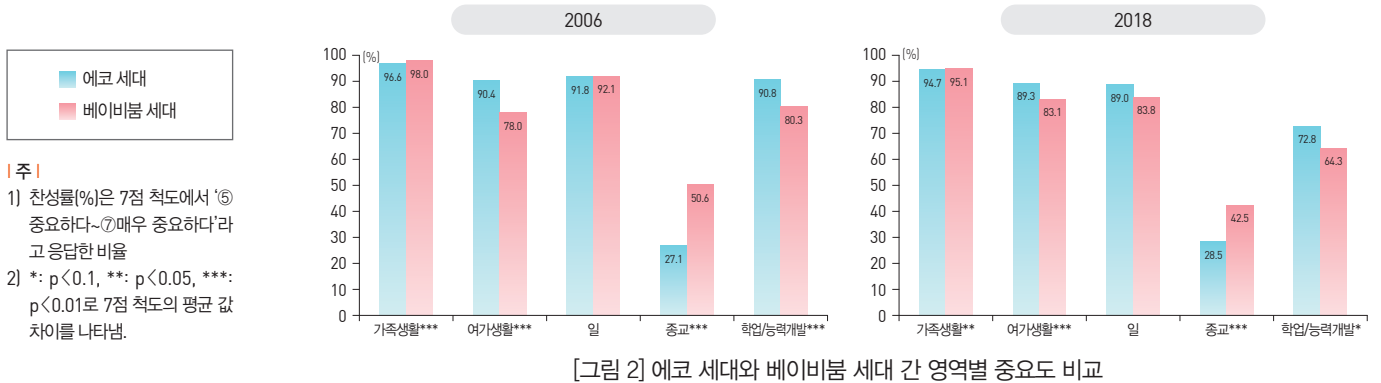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]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간 일의 가치 비교

| 에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여가생활과 학업/능력개발을 삶에서 중요시함.

- 2006년과 2018년 조사 결과, 에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여가생활과 학업/능력개발을 더 중요시함.
- 단, 12년 전과 비교하여 세대 간 중요도의 차이는 대체로 감소하였음.

- 베이비붐 세대가 오랜 직장생활과 인생을 경험하면서 여가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은 것으로 판단함.
- 에코 세대는 학령기를 지나면서 학업/능력개발의 중요성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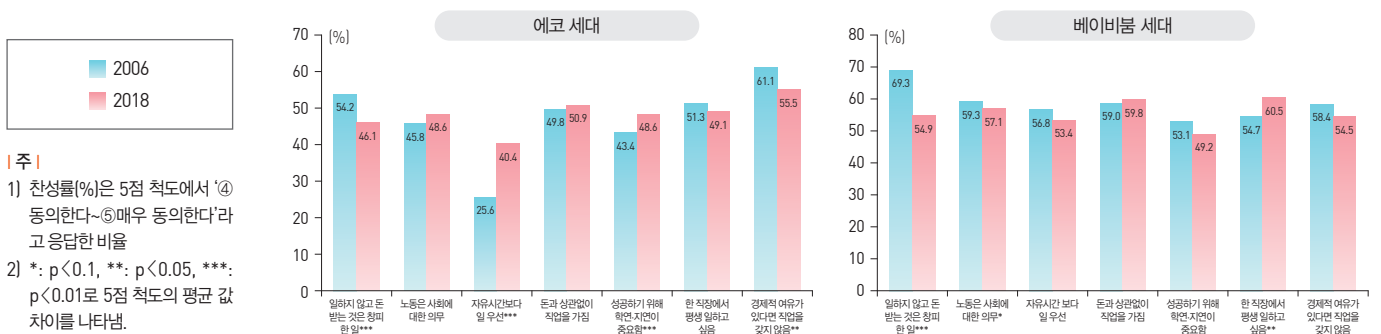


[그림 2]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간 영역별 중요도 비교

03 동일 세대의 12년간 직업의식 변화

12년간의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는 일과 노동 중심의 가치관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에코 세대는 과거에 비해 일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.

- 지난 12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는 일과 노동 중심의 가치관을 견지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하여 베이비부머의 사고는 유연하게 변화함.
 - ‘노동은 사회에 대한 의무’라는 신념, ‘자유시간 보다 일 우선’이라는 생각은 12년간의 시간 경과에도 큰 변화가 없음.
 - ‘일하지 않고 돈 받는 것은 창피한 일’이라는 의견에 대한 찬성률은 2006년 69.3%에서 2018년 54.9%로 14.4%p 감소함.
- 에코 세대는 12년 전에는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지 않았지만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일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뀜.
 - ‘자유시간보다 일 우선’에 대한 찬성률이 14.8%p 증가한 반면, ‘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음’에 대한 찬성률은 5.6%p 감소함.
 - 한편 ‘성공하기 위해 학연과 지연이 중요함’에 대한 찬성률이 5.2%p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에코 세대는 12년 전보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회의적으로 변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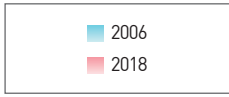


[그림 3]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일의 가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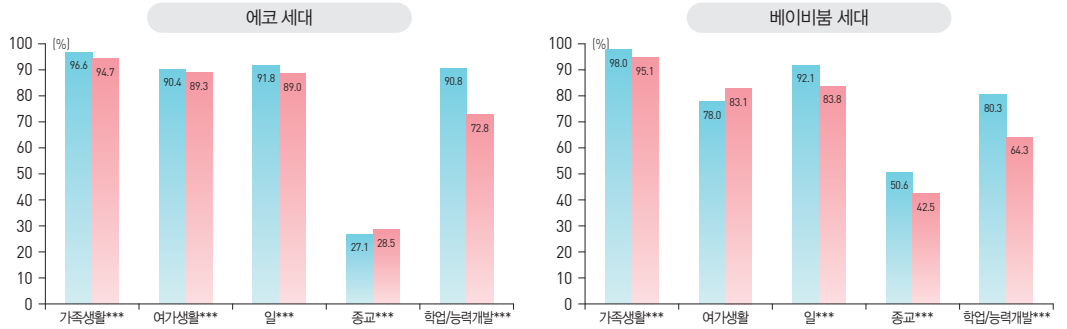
베이비붐 세대는 12년 전보다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며, 에코 세대는 학업/능력개발의 중요성을 과거에 비하여 낮게 인식함.

- 삶의 영역별 중요성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식을 보면, 이전보다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일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함.
 - 베이비붐 세대는 12년 전과 비교하여 학업/능력개발의 중요성은 16.0%p, 일의 중요성은 8.3%p, 종교의 중요성은 8.1%p로 각각 찬성률이 감소함.

- 반면 베이비붐 세대에게 여가생활의 중요성은 12년 전과 비교하여 5.1%p 찬성률이 증가함.
- 에코 세대의 경우 12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학업/능력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찬성률이 18.0%p 현저히 감소하고, 일의 중요성에 대한 찬성률도 2.8%p 줄어듦.
- 가족생활, 여가생활, 일, 학업/능력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모두 감소한 반면, 에코 세대가 인식하는 종교의 중요성은 1.4%p 찬성률이 증가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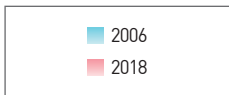
주 |
 1) 찬성률(%)은 7점 척도에서 '⑤ 중요하다~⑦매우 중요하다'라고 응답한 비율
 2) *: p<0.1, **: p<0.05, ***: p<0.01로 7점 척도의 평균 값 차이를 나타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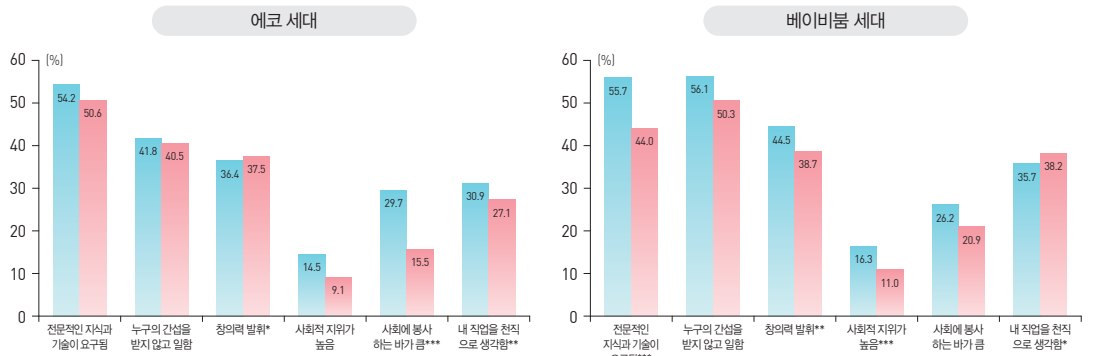
[그림 4]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영역별 중요도 변화

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베이비부머의 자기 평가는 에코 세대의 자기 평가보다 낮고, 시간 경과에 따라 보다 부정적으로 변화함.

-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업의 전문성에 대해 스스로 낮게 평가함.
 - 지난 12년 동안 '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'에 대한 찬성률이 11.7%p 감소하였으며, '창의력 발휘'에 대한 찬성률도 5.8%p 하락함.
-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에코 세대의 인식도 시간 경과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변화함.
 - '사회에 봉사하는 바가 큼', '내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함'에 대한 찬성률은 2006년에 비해 2018년 각각 14.2%p, 3.8%p 감소함.



주 |
 1) 찬성률(%)은 5점 척도에서 '④ 그런편이다~⑤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한 비율
 2) *: p<0.1, **: p<0.05, ***: p<0.01로 5점 척도의 평균 값 차이를 나타냄.



[그림 5]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의 전문성 변화

04 시사점

-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할 경우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의식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.
 - 베이비붐 세대는 청년기에 경제 개발 시대를 보내고 오랜 직장생활을 하였으며, 생산적 노동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. 그러나 일과 노동에 대한 베이비부머의 가치관이 단순하지 않고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.
 - 에코 세대는 미디어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시기에 청년기를 보냈으며 이제 본격적인 직업 생활에 들어와 있음. 이들은 생산적 노동의 가치를 이전보다 높게 평가하지만 꾸준하게 여가생활을 중요시함.

한 상 근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)